중도일보

2021년 08월 23일 (월)
18면 오피니언

# 말 한마디의 힘

**월요논단**

김 찬 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옛날 어느 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배가 고파 온종일 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울음을 멈추기 위해 매질하는 게 일상이었고, 마침 그 집 앞을 지나던 스님 한 분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다가 매를 맞는 아이에게 큰절을 합니다. 놀란 부모가 연유를 묻자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될 분이니 귀하게 키우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매를 들지 않고 정성 들여 키웠고 정말로 정승이 됐습니다. 부모는 스님의 말이 신통해 수소문 끝에 찾아가 어찌 그리 용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하기를 '소승이 어찌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란, 정승같이 키우면 정승이 되고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이 되는 게 세상 이치라 잘 살고 못사는 건 마음가짐에 달린 거지요'라고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인도의 지성 타고르는 일찍이 부모와 자식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으니 당신이 아는 배움의 범위에 자식을 한정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맞고 자란 아이가 매를 더 신봉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한 살, 세 살, 그리고 다섯 살 때 등 네 번에 걸쳐 양육과 처벌유무, 빈도, 아이들의 공격성을 측정했더니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따뜻한 말이나 칭찬을 잘 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아이에 비해 공감 능력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이 쓴 '블링크(첫 2초의 힘)'을 보면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환자들에게 2번 이상 고소당한 의사와 반대로 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의사들을 관찰한 결과, 둘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대화법'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신뢰를 쌓아 왔던 환자와 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의사를 원망하지 않은 반면에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불친절했던 의사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는 거지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자동차가 속력을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엑셀레이터나 핸들, 타이어 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브레이크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어찌 속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속력만 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인디언이 말을 타고 한참을 달리다가 잠시 멈춰 서는 것은 내 영혼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듯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15초만 참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데, 우리 뇌는 복잡하면서도 단순해서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은 15초 내에 피크에 도달했다가 이후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이랍니다.

얼마 전 끝난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선수의 짧은 헤어스타일이 페미니즘 논란에 휩싸이자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일언기출(一言旣出) 사마난추(駟馬難追)라, 한 번 뱉은 말은 4마리 말이 끄는 빠른 마차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날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불신과 혐오의 말들은 건강한 사회를 좀먹고 분열로 이어지기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나약하기 때문이요, 입을 닫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무례하고도 경솔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입추 말복 지나고 벌써 처서입니다만, 아직도 무더위에 짜증을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코로나19로 지치고 힘겨운 삶, 잘 이겨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7 X 15.4 cm